

소득격차 갈수록 심화... 서민들 더욱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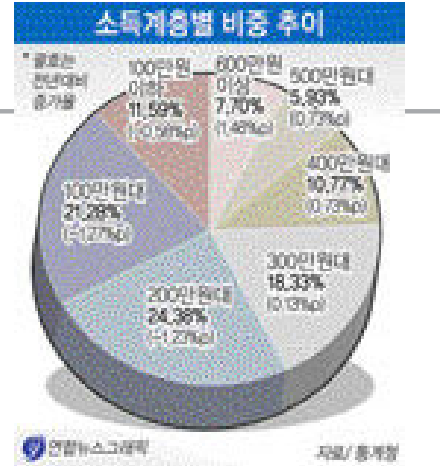
월소득 600만원 이상 123만 가구

매달 6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구가 1년새 25만 가구 늘어난 반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7만 가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계층간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취하위 가구는 전체의 11.59% (185만3천가구)로, 2005년 12.7%에 비해 0.58% (6만8천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1년간 고소득 가구가 25만여 가구 늘어나는 사이 저소득 가구는 겨우 7만 여가구 줄어드는데 그친 셈이다.

또 월 소득 300만원대 가구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18.33%를 차지해 2005년 18.20%에 비해 0.13%p 증가했다. 가구 수로는 월 500만원대와 400만원대 가구는 1년새 각각 12만7천가구와 13만7천가구가 늘었고, 300만원대 가구는 5만7천가구가 늘었다.

38%로, 100만원대 가구는 22.55%에서 21.28%로 각각 1.23%, 1.27% 감소했다. 가구 수로는 각각 14만6천가구와 15만8천가구가 줄었다.



크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을 했지만 양극화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경제가 성장하면 오히려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25만가구 늘어...소득 하위 가구 감소세는 주춤



김만복 국정원장(앞줄 왼쪽)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보위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탈루 의혹·석공테러 등으로 사법불신 초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결단’ 요구

내부통신망 글 파문

일선 법원 부장판사가 김명호 씨의 '석공 테러'와 관련해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서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이에서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을 쓰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기소된 후에도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등 부장 승진 인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지만 동기들보다 한 해 늦게 임관했으며 연수원 15기의 경우 최근 발표된 고법 부장 승진 인사에서 선두권 8명이 승진했다.

국정원 “北, HEU 프로그램 존재”

6자회담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난 2005년 9월 미국의 BDA(방코벨 타아시아) 조지 이후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작년 10월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 없앤다

법제처, 남녀차별 법률 360개 개정 방침

법제처는 20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법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해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하고, 법무부는 이달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Advertisement for 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raining course.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courses.

중개사 특강.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agent training courses.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heating systems.

등불! Advertisement for a candle festival or religious event.

현장과 시각

광주 광산업이 넘어야 할 산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光)은 제2, 제3의 자원이다.” 지난해 3월 ‘현대전환의 개척자’로 불리는 당시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이 광주시 북구 오룡동 ‘한국광기술원’을 방문해 ‘광’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임을 예견한 말이다.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광’은 벌써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휴대전화·LCD·자동차 전구는 물론이요, 내년부터는 형광등 밝기의 반도체 조명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광기술원이 지난해 개발한 광(光)산업 기술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된다. 그동안 연구·개발에 치중하던 광산업이 상품화되면서 자동차·디지털 가전과 함께 광주발전의 ‘쓰리톱’(Three Top)의 자리를 견고히 한다는 의미다.

세계 최고인 60룩스급 ‘디지털 캐러리어용 LED 플래시 모듈’은 미국 ‘루미레드’ 제품보다 1.4배의 조도를 자랑한다. 네온사인을 대체할 ‘LED 라이팅 바’는 기존 네온관에 비해 1m당 9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00억원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